



대건총동창회보

언제나 어디서나
양심과 정의와
사랑에 살자

제 42호 2016년 9월 30일 / 발행인 : 신기옥 / 발행처 : 대건중고등학교 총동창회 / www.daegungo.net / 편집인 : 김용기(30회) · 최기원(42회) Tel. 053)638-6860



“모두가 놀란 70주년 음악회”

1300여 동문이 만들어낸 결실...타 단체의 찬사 줄이어

모교 개교 70주년 기념 음악회가 6월25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동문과 동문 가족 등 1천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총동창회 신기옥 회장, 여창환 매일신문사 사장 등 동문 리더들이 대거 참여했다.

동문 국회의원인 광상도, 강효상, 김상훈 동문과 박인규 대구은행장, 김영만 군위군수, 정현태 경일대 총장, 김영진 재경회장, 노환균 전 법무연수원장, 김현기 경북도 행정부지사, 이찬희 청와대 비서관 등이 부부

동반으로 참석했고 교육계에서는 함인석 전 경북대 총장과 도광의 시인, 안도현 시인 등 각계각층에서 활약 중인 동문들이 모두 동참했다.

또 모교가 위치한 달서구 국회의원의원 윤재욱 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개교 70주년 기념 음악회는 개교 70주년을 축하하는 레이저쇼와 웅장한 타악 연주로 시작을 알렸으며, 2부에서는 동문 선·후배 인사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인사가 이어졌다. 또 3부에서는 남성 성악 앙상블 ‘이칸만파’, 뮤지컬 배우 최경원, 전자

현악단 ‘라피네’ 등이 출연해 흥겨운 연주회를 만들었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총동창회가 기획부터 섭외 진행까지 주관했으며 관악오케스트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출연진들이 동문과 재학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음악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인해 타 동문회로부터 부러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행사준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는 등 대구지역 동문 단체에서는 획기적인 행사였다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신기옥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동문회 결성 이후 최대규모의 행사가 된 것은 지금까지 각계각층에서 자리잡고 있는 동문들의 활약상을 그대로 보여 준 것”이라며 “이제 대건인들은 개교 70주년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도적 인물들을 배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축사에서 “대건중·고등학교는 1946년 개교한 이래 가톨릭 이념을 바탕으로 우수한 인재를 끊임없이 배출해온 유서 깊은 명문학교”라며 “70년 역사 동안 5만7천여 명의 대건 중·고등학교 동

문들의 단합된 힘과 저력이 아름다운 음악회로 울려 퍼지고 있음을 축하 드린다”고 말했다.

모교 재단이사장이자 천주교대구대교구장인 조환길 대주교는 “가톨릭교회가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복음화라는 대전제 아래 하나님의 사랑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며 “비록 각박한 세상이지만 모든 대건인은 언제나 어디서나 양심과 정의와 사랑에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화보 7면)

40회 동기회 홈 커밍데이

11월 18,19일 모교 안드레아관 3층서

40회 동문들이 졸업 25주년을 맞아 그동안 우애도 다지고 학창시절 은사를 찾아보는 ‘홈 커밍데이’를 오는 11월18일(금요일) 모교 안드레아관 3층 시청각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40회 동문들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고 교직원과 전교생들에게 빵과 음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다음날인 19일에는 은사님들을 초청해 은사의 밤 행사를 열고 25년 전으로 돌아가 학창시절을 되뇌이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40회 동문들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 부산 등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동기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등 힘을 모으고 있다.

또 40회 동문들은 홈 커밍데이 행사에 앞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동기회의 활성화에 함께 동참하자는데 뜻을 모으고 삼삼오오로 동기 찾기에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40회 동기회는 동기들의 연락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연락처 : 회장 김현철 (010)3523-0980, 총무 고창화 (010)5528-3874.

10월 9일 모교에서 만남시다

제38회 대건가족 체육대회
장소: 월성동 대건고 운동장
연락처: 053)638-6860

BEST COMPANY & BEST SPRINGS

“아주산업의 도전과 열정에는 심표가 없습니다.”



아주산업(주)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가야리 107-1

TEL : 053- 857-0666 FAX : 053-857-0665

회장 신기옥(총동창회장, 고6회) E-mail : ahju0666@hanmail.net

모교 20대 국회의원 최다 3명 배출

지역구 2, 비례대표 1명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교 사상 최다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지난 4월 13일 실시된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27회 광상도 동문과 28회 강효상 동문, 그리고 31회 김상훈 동문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과거와는 달리 3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된 것은 모교 출신 동문들의 사회적 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박상도(고27회) 국회의원



강효상(고28회) 국회의원



김상훈(고31회) 국회의원

국장 출신인 강효상 동문의 경우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광상도 동문은 대구서부지정장을 거쳐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법조인으로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효상 동문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조선일보 편집국장, 미래전략실장, 논설위원을 거친 정통 언론인으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미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이 재선인 김상훈 동문은 오리건대학교 행정학 석사를 거쳐 대구시청 경제통상국장을 지냈으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농촌 어르신에 봉사...군위군지역서 이틀간 활동

전국 중고등학교 총동창회에서 유일하게 한국농어촌공사의 주관인 농촌지역 어르신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군위 (군수 김영만 (19회))지역에서 11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실시했다. 전국 1200개 단체가 신청하여 204개의 단체가 선정되어 1000만원~200만원의 지원받아 농촌봉사활동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대건총동창회가 유일하게 선정되어 1000만원의 경비지원을 받아 메이크업, 이·미용, 장수사진(영정사진) 촬영, 돋보기 안경 제작 등을 전달하였으며 12월 4일에는 군위지역 어르신을 모시고 중학교 오케스트라를 연주하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돋보기 안경 제작에는 29회 허봉현,



장수사진촬영은 32회 정우영 동문, 이·미용은 대구 중구 미용사협회 회원, 메이크업은 군위 지역봉사단체의 도움을 받았다.

총동창회 동정

동문초빙 재학생 대상 특강

총동창회는 재학생들의 진로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문들을 초빙, 특강을 실시했다.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시작된 재학생들의 진로탐색을 위한 선배들의 특강은 10월 23일 민경주(20회, 前 나로호 우주센터장), 10월 30일 최정우(36회,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11월 6일 이성우(23회, 한국수자원공사 본부장), 11월 13일 정두선(29회, 서부연합병원 원장), 11월 27일 강효상(28회, 새누리당 국회의원) 동문이 후배들에게 열강을 1시간반 후, 질문도 1시간반 이상이 나왔다.



해 11월 17일 대구시 남구 소재 식당에서 개최됐다. 한해의 결산보고와 향후 장학금 모금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날 경비는 신기욱 장학회 이사장님이 부담했다.

지난 1월 26일 오후 7시 모교 안드레아관 3층에서 개최했다<위 사진>, 이날 행사에는 350여명이 참가해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회 준비위원들과 자리를 함께하며 성공적인 마무리 행사에 대한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총동창회 장학회 이사회

총동창회 장학회의 이사회가 지난

신년교례회 성황

총동창회는 2016년 신년교례회를

체육대회 주관기수 격려

총동창회는 지난해 11월 19일 집행부와 33회의 37회 대건가족체육대

40회 정기총회

2016년 홈커밍데이(졸업 25주년) 행사의 주관기수인 40회가 지난해 12월 4일 두산동 아일랜트하우스에서 총

“함께한 70년, 하나된 대건”

제38회 대건 가족체육대회 2016년 10월 9일(일) 모교운동장

대건동문 가족들의 축제의 마당인 대건총동창회 가족체육대회가 오는 10월 9일(일요일) 월성동 모교교정에서 ‘함께한 70년, 하나된 대건’ 슬로건을 내걸고 성대하게 개최된다. 대건중고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34회 동문들이 주관하는 이번 체육대회는 동문과 동문가족들이

대건인으로서의 결속을 다지고 긍지를 갖게 하는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이번 대회 개막식은 입장식을 시작으로 총동창회장의 개회선언과 내빈소개, 개회사 및 환영사, 그리고 축사 및 격려사가 이어지고 주관기수의 모교 장학금 전달과 고 백준

호 동문 홍상 제막식을 가진다. 이어 지난해 종합우승 기수인 29기의 우승기 반환, 그리고 체너출진 기수의 선수대표 선서로 진행된다. 선수대표 선서 후에는 입장식 최다 참가 기수상과 46회, 47회, 48회 등 3개 동기에 최다 참가 기수상을 시상한다.



총동창회 산악회 대구 앞산 산행 대건중고등학교 총동창회 산악회는 2016년 4월 화창한 날씨 속에 앞산 산행 행사를 가졌다. 출발에 앞서 동문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회를 갖고 내년 행사를 위해 동기생들의 단합을 강조하였다.



42회 정기총회

42회 동기회(회장 이동욱)는 지난 3월10일 알리앙스에서 총회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동기회의 활성화 노고가 많은 이주현 동문은 이동욱 동기에게 회장직을 넘겨 주었으며 앞으로 42회의 발전을 위해 다짐하였다. <위 사진>

이날 행사를 축하 하기 위해 동창회 집행부와 건청회 회원들이 다수 참석 하였다.

체육대회 준비모임

총동창회는 지난 4월 15일 제 38회 대건가족 체육대회 주관 기수인 34회 추진위원들과 총동창회 집행부와 체육대회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조하는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70주년행사 최선 다짐

총동창회는 지난 4월 26일 개교 7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해 집행부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음악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임무분장을 하여 최선을 다짐했다.

중간 기수 대표회의

총동창회는 지난 5월 10일 활발한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27회부터 36회 대표회의를 시내 진골목식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슷한 나이대로 간담회를 갖는 것이 대화가 활발하고 분위기도 좋으며 70주년을 기념 음악회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뮤지컬 티켓 배포

총동창회는 개교 기념음악회의 대성공에 가장 큰 공로자인 각 기별회장과 총무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지원과 협조를 하여준 동문과 모교 교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세계 3대 오페라중 하나인 ‘투란도트’의 입장권400장(단가 8만원)을 아진산업의 지원을 받아 지급하였다.

축 대건 동창회 보 발간

태령건설

건축, 토목, 조경
산업설비 전문시공업체

053)422-3332, 812-8002

“양심과 정의와 사랑으로!”



제37회 가족체육대회 화보

지난해 10월11일 33기가 주관한 제37회 총동창회 체육대회는 2천여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모교 교정에 모여 동문들간의 우애를 다졌다. 이날 대회 역시 어린 자녀들이 함께 참가해 가족체육대회의 이미지를 물론 풍건 의미있는 가족 잔치였다.

다채로운 경기와 부대 행사, 푸짐한 경품으로 참가자 모두가 즐기는 행사를 뿐아니라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형님 동생간의 친숙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푸짐한 선물보따리를 양손에 들고 즐거워하는 동문가족들의 모습은 마치 동화속의 아름다운 그림을 연상시키기도 했다.

각 기수별 자존심을 걸고 맘 흘리는 형과 아우간의 태도는 진지하면서도 승패를 떠나 서로를 감싸주는 아름다운 선후배간의 미덕을 연출한 이번 대회는 대건학교의 교훈을 그대로 실천하는 듯했다.

이날 체육대회는 29기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화기에애했던 대건인들의 축제마당이었던 제37회 체육대회를 화보로 엮어본다. (편집자주)



대전 중·고등 총동창회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전중·고등학교 총동창회 골프회 회장 이영철(고20회)

故 백준호 동문 흉상 제막된다

(최초 산악의사자)

모교 출신 최초 산악의사자로 선정된 고 백준호 동문(중 33, 고 35)의 흉상이 모교 교정내에 제막된다.

총동창회는 대건동문 가족체육대회가 열리는 오는 10월 9일 모교 교정에서 고인의 흉상을 제막하고 고 백 동문의 숭고한 정신과 희생정신을 영원히 기리도록 할 계획이다.

고 백 동문의 흉상은 동, 제단은 화강석으로 가로, 세로 65cm, 높이 180cm의 크기로 제작되었으며 흉상공원 조성 등 총 2천500여만원이 투입됐다.

고 백 동문의 흉상은 고등학교 교정에 있는 김대건 신부 동상 옆에 건립된다.

총동창회는 2015년부터 흉상 건립을 위한 기금모금운동을 전개해 2천6백22만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이 기금에는 각 기수별 동문회의 모금과 뜻깊은 동문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결과다.

고 백 동문이 지난해 흥행 대박을 터트린 '히말라야'라는 제목의 영화가 고 백준호 동문의 희생 스토리를 담았듯이 고 백 동문은 한국 산악사는 물론 우리사회에 귀감이 된 자랑스런 인물로 평가 되고 있다.

고 백 동문은 2004년 대구 계명대학교 개교50주년 행사로 히말라야 원정 등반에서 생긴 사고로 동료인 고. 박무택, 고. 장민 대원을 구하기 위해 불가능하다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었으며 우리는 고 백 동문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흉상제막을 하게 된 것이다.

이 흉상에는 '산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등정, 양심, 사랑을 실천한 의인'이란 타이틀이 새겨져 있으며 고 백 동문에 대한 활동상과 사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그의 희생정신을 강조했다.

모교 교정에 조성해 희생정신을 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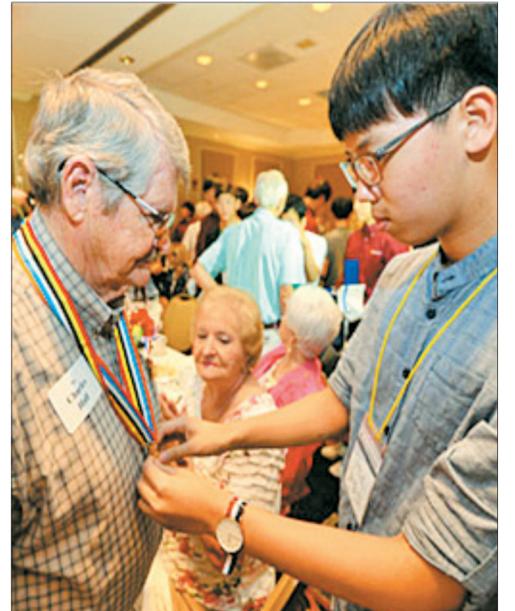
■ 흉상 건립 성금 현황

기수	금액(원)	기수	금액(원)
1		33	1,000,000
2		34	200,000
3		35	3,000,000
4		36	200,000
5		37	200,000
6		38	200,000
7		39	200,000
8	200,000	40	200,000
9		41	200,000
10	200,000	42	500,000
11	200,000	43	200,000
12	200,000	44	200,000
13	200,000	소계	10,600,000
14		지역동문회 및 기타	
15		재경동문회	1,000,000
16		재부산동문회	300,000
17	200,000	재대전동문회	200,000
18	200,000	재경남동문회	200,000
19	200,000	재달성동문회	200,000
20	200,000	OB대건산악부	2,000,000
21	200,000	제우회	1,000,000
22	200,000	신기육회장	3,000,000
23	200,000	허문영(19회)	2,000,000
24	200,000	양창수(20회)	1,000,000
25	200,000	손진열(23회)	100,000
26	200,000	서중호(27회)	3,600,000
27	200,000	전경수(28회)	1,000,000
28	300,000	이대환(40회)	20,000
29	200,000	소계	15,620,000
30	200,000		
31	200,000	합계	26,220,000
32	200,000		

“한국 지켜줘서 고마워요”

제3차 미국 문화탐방행사...아진US 매년 재학생 파견

동남부지역 대학·고교 CNN방송국 등 견학해



학생과 교사가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노래를 부르고 있다. 대건고 학생이 한국전 참전 미군 노병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걸어주는 장면.

모교 미국 문화탐방단이 지난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동남부 지역 대학과 고교, CNN방송국 등을 견학·체험하면서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당초 5명의 고등학생 참가자를 총동창회의 요청으로 10명으로 증원, 중 2명, 고 10명, 교사 2명 등 14명으로 구성된 대건중·고 탐방단의 미국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모교 총동창회 장학회가 주최하고 아진산업(주) 대표인 서중호(고 27회) 동문의 후원으로 2014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이 탐방단에는 의료계,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전문직에 몸담고 있는 동문 8명도 동행해 멘토 역할을 했다. 서 동문은 후배들이 미국 여행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무언가 느끼고 배우는 기회를 주기 위해 3년째 후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13시간이 걸리는 장장 1만1천여km 떨어진 미국을 방문한 탐방단원들은 먼저 서 동문이 경연하고 있는 미국 엘라베마주의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 아진USA와 우신USA 공장을 견학했다.

다음 날 견학을 한 엘라베마주 어번대학교는 160년의 오랜 역사에다 수의학 약학 재활상담 등의 분야에서 특히 뛰어난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이들의 최고경영자 팀 쿡의 모교다.

이 대학 서수현 교수(심리학)의 안내로 도서관 등을 둘러보면서 훌륭한 시설과 공부하기 좋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어번하이스쿨에서는 우리 교육 현실과 다른 수업 방식과 다양한 동아리 활동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체육관 도서관 등을 견학하면서 동경과 부러움을 느꼈다.

탐방단원들은 이어 어번대 교내 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한국전쟁 참전용사 초청 감사 행사에도 함께했다.

서 동문과 재학생들은 이날 참석한 20명의 참전용사들에게 국기봉환에서 주는 “평화의 사도” 메달을 걸어주고 감사의 마음



미국문화탐방단이 아진USA를 견학하고 있다.

을 표현했다. 백발이 성성한 참전용사들은 한국전 당시를 회상하는 듯 눈시울을 붉혔다.

이들은 이어 미 공군정비박물관, 배틀십 메모리얼 파크, CNN 방송국, 코카콜라박물관 등을 견학했다.

인술교사인 이동균 대건고, 최영구 중 교사는 “학생들이 미국에서 보고 느꼈던 소중한 경험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거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새로운 동기부여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30대 동문들 동창회 새 활력소

46·47·48회 동기회 총동 합류

총동창회가 30대 젊은 시대 동기회들의 불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월 열리는 대건가족체육대회에 46회, 47회, 48회 동기회가 대거 참여해 동창회의 앞날을 밝게 하고 있다.

이번 3개 30대 동기회의 참가는 3년여 동안 후배 기수들의 참여가 없어 고심하던 총동창회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고 있다.

이들 3개 동기회의 참여는 무엇보다

다도 37회부터 48회 동기회 회장단으로 결성된 건청회의 지속적인 후배 동문회 발굴과 지원을 통해 이루어진 성과이기도 하다.

이번에 처음 참여하는 46회는 이덕희 회장이 이끌고 있으며 30명으로 출발하여 지속적으로 조직을 넓혀나가고 있다.

47회의 경우 신동호 회장을 중심으로 2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현호 회장이 이끄는 48회는 20여명의 동문들로 구성되어 있어 30대의 후배동문 80여명이 총동창회의 활동에



46회 이덕희 회장



47회 신동호 회장



48회 이현호 회장

본격적으로 동참하게 됐다.

건청회는 현재 총동창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각 행사 때마다 굿모닝을 맡아 처리하는 등 동창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개인주의와 되어 있는

현 사회의 분위기에서 타 동문회의 경우 신규 기수들의 참여 결여로 고심하고 있는데 반해 본 동창회는 젊은 세대 기수들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 가고 있어 총동창회의 미래를 아주 밝게 해 주고 있다.

제40회 졸업 25주년 홈커밍데이

- 일 시 : 2016년 11월 18·19일(양일간)
- 장 소 : 모교 안드레아관 3층 시청각실
- 연락처 : 회장 김현철 010-3523-0980
총무 고창화 010-5528-3874

모교서도 개교 70주년 기념...전시부스·먹거리장터 등 자축

대건고등학교는 개교 70주년 기념 축제 행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대건고 재학생들은 동아리 및 학급 전시 부스, 먹거리 장터, 사제동행 미니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고 개교 70주년을 자축했다. 지난 9월 12일 월요일, 모교 안드레아관과 대건관에서 개교 70주년 기념 학교 축제 행사로 동아리별, 학급별 전시 부스 운영과 사제동행 미니 체육대회,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수고해 주신 먹거리 장터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오후 1시 커피식을 시작으로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각 동아리, 학급에서 준비하고 전시한 다양한 아이템들을 직접 체험하고 관람하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또한 학부모님들이 준비하신 맛있는 먹거리들을 먹으면서 축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도 했다. 전시와 동시에 대건관에서는 드론 동아리의 축하 비행에 이어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사제동행 미니 체육대회가 열려 농구와 배드민턴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와 대화 소통...父子同行 등반대회 정기 개최

대건고 재학생들은 부자동행 등반대회를 정기적으로 마련, 산행을 하면서 부자간의 대화를 통해 돈독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부자동행 등반대회는 하늘정원에서 출발하여 비로봉, 서봉을 거쳐 부인사까지로 이어지는 산행은 평생 경험하지 못할 아버지와 자식간의 귀중한 기회가 되고 있다.



“사교육을 없애자” 모교 교사 실천운동 다짐식 가져

모교는 2016 사교육 경감 5대 실천 운동 다짐식을 지난 7월 18일 개최했다.

모교는 이 다짐식을 열고 *교육공동체 실천 프로젝트는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직원으로서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 즉 본분을 수행한다는

자긍심에서 출발하여 *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추진하는 교직원 자신부터 앞장서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출발 * 교육공동체 실천 프로젝트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동참하며 공교육의 주체로 바로 서겠다는 선언적 의미의 실천 운동을 전개한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내 자녀 사교육비를 줄이고 방과후학교에 적극 참

여시킴은 물론 자녀의 인생에 멘토로 적극 참여하면서 1인 1교육기부를 실천한다는 실천강령을 다짐했다. 이와 더불어 사교육 영향 없는 학교 행사 만들기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서중호 선배님께 드리는 편지

고2학년 김중엽

미국인의 정신 본받을 터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미국 체험 3기의 반장을 맡은 김중엽입니다.

우선 이렇게 미국에 있다는 것 자체가 실감이 나지 않고 하루하루 큰 깨달음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날 미국에 도착했을 때 시차 적응에는 힘들었지만 선배님의 아진 USA 공장을 견학하면서, 공장의 규모를 느낄 수 있었고, 또 현지 미국 직원 분들이 즐겁게 자신의 일을 하는 태도에서, 그들의 태도나 마인드를 배우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머니 미국 땅에 이렇게 큰 공장을 세우시고, 직원들을 위해 신경 쓰시는 선배님이 정말 대단하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이번 여행에서 더욱 감사한 점은 바로 저희들에게 훌륭한 선배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들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덕분에 저희는 보다 더 많은 지혜와 경험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해변에서 스노클링과 페러 세일링을 체험해 보았는데,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현지 미국인들과 함께 체험을 하면서 서로서로 몇몇 대화도 나누어 보고,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면서 미국의 문화에 좀 더 스며들 수 있었습니다. 또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이는 분명히 정말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지 식은 저희에게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비록 저같은 경우에는 모든 음식을 맛있게는 먹지 못했지만, 이러한 음식을 경험하면서 미국의 문화에 대해 좀 더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그것도 고등학생 때 가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수학여행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해외여행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해외여행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이러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또 여행의 소중함, 가치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여행이 끝나지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체험은 제가 보거나 경험한 그 어떤 여행보다도 최고의 여행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체험 프로그램은 앞으로 제가 공부하고, 살아가는데 큰 주춧돌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모교의

후배들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서중호 선배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 때문에 너무나도 고생하신 아진 USA 직원 분들과 아진 직원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2회 원애드 대표 최기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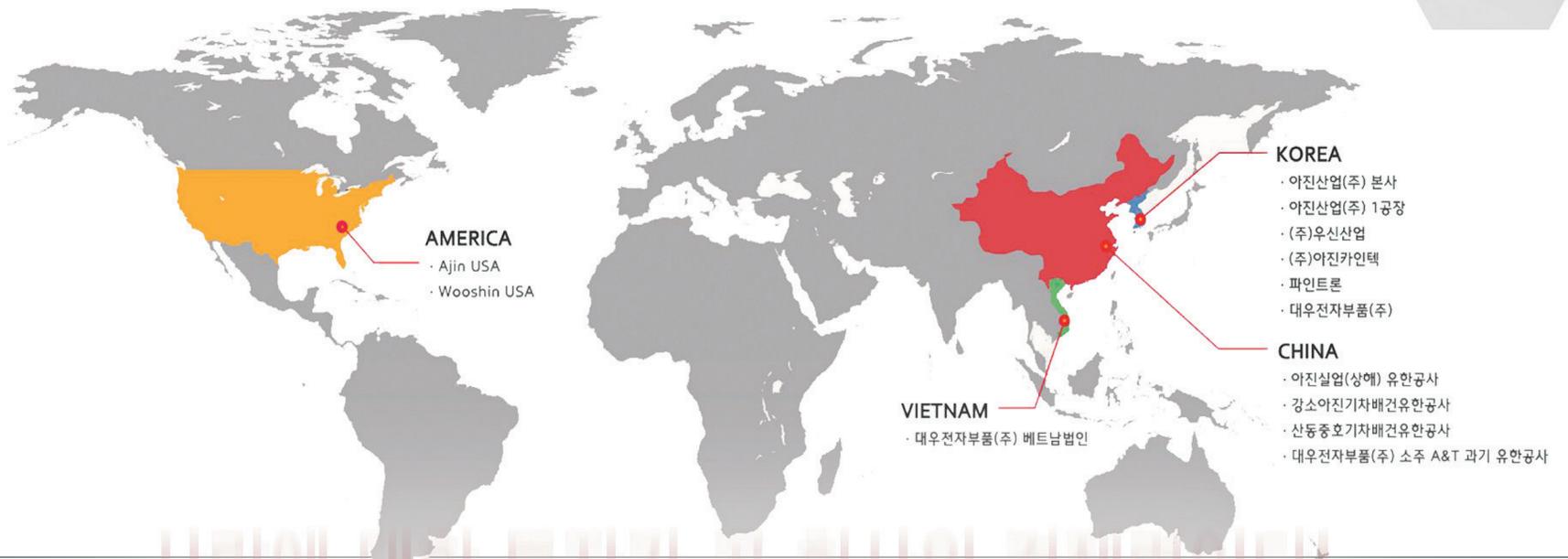
저희 원애드는 대건 총동창회 회보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인쇄·광고 도움이 필요하신 선후배님들이 계시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수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함/쿠폰/스티커/전단지/자석인쇄물/메뉴판/인쇄쇼핑백/인쇄테이프/인쇄비닐/인쇄봉투 양식지/카탈로그/리플렛/현수막/유포지/차량유포지/주차금지판/안내판/배너/전단지배포 행사용품/판촉용품/입간판/안전용품 등...

원애드 최기원(42회)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18길 17 1층 / TEL 053-553-1213 / HP 010-2944-3478 / E-mail ckw3760@naver.com

101년을 생각하는 자동차부품 전문기업
 To Be The Best In The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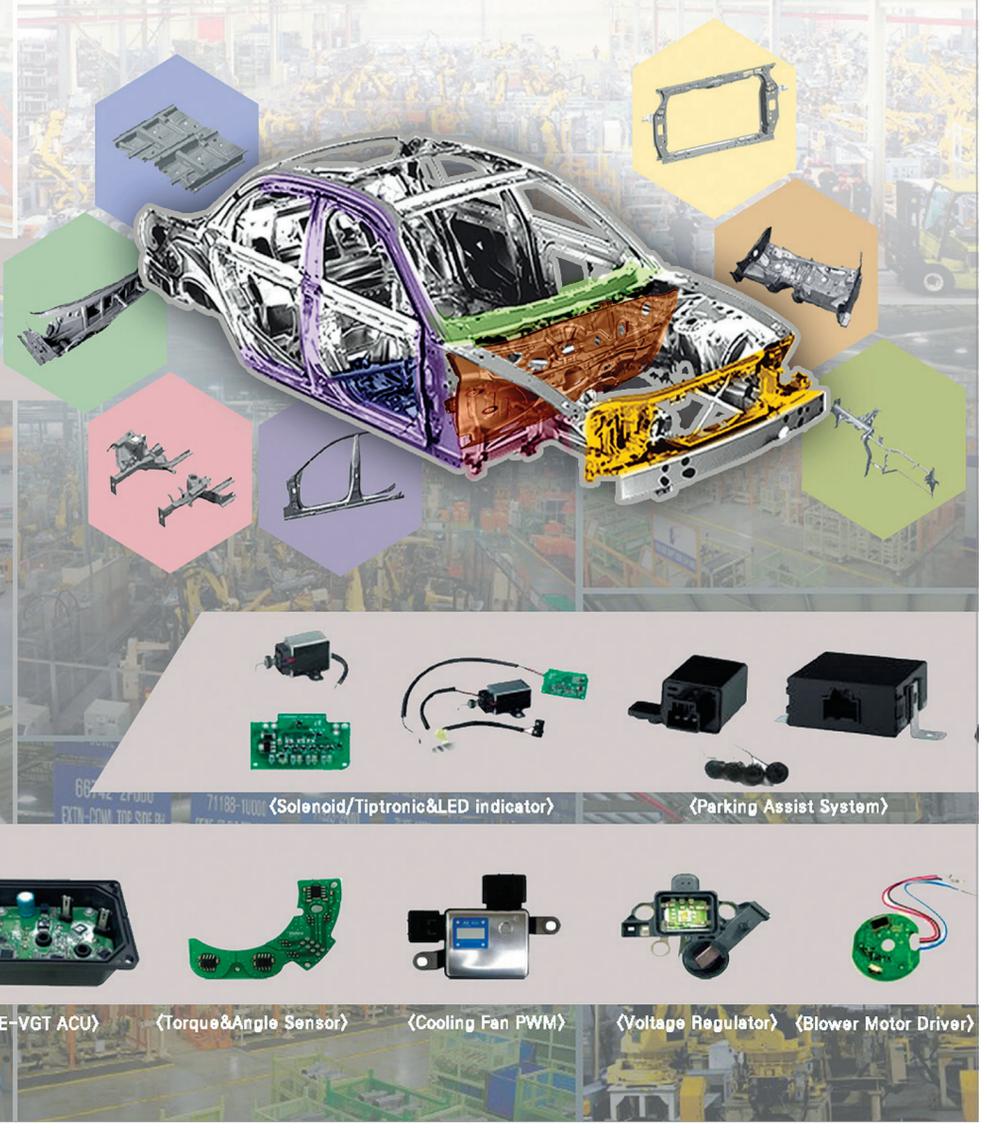


사람에 대한 투자가 곧 회사의 경쟁력이다!



아진산업(주)는 Global 기업으로써 미국, 중국, 베트남에 첨단 기술 생산 라인을 구축하여 이를 디지털 구조의 업무환경으로 일원화하여 자동차 부품 및 각종 전자제품들을 신속하고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 아진산업 주식회사 코스닥 상장
- FTA BP 경진대회 대상 수상
- 2015년 일학습병행제 전국성과경진대회 대상 수상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기관 선정 주관 : 고용노동부
- 열린고용리더 고용 표창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 무역의 날 1억불 수출의 탑 수상
- 종합인증우수업체 A.E.O 공인인증 획득
- 월드클래스 300 선정
- 제 2회 경상북도 클린(Clean) 경영 대상
- 일하고싶은 중소기업 선정 (노사발전재단)



대전중 고등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음악회

“음악과 어울린 동문들의 위대한 합성”



■ 음악회 기부 현황

기수	적요	금액
12회	12회 동교회	100,000
20회	산악회 노중암회장	1,000,000
20회	골프회 이영철회장	300,000
21회	채강수회장	250,000
22회	동교회 변중훈 총무	200,000
23회	23회 장준철	100,000
23회	23회 황규성	200,000
23회	재청주 신종화 회장	300,000
23회	송준조명 윤호섭	2,000,000
23회	23회 동교회	250,000
23회	23회 재경동교회	500,000
23회	23회 기일형	500,000
24회	24회 동교회	200,000
25회		
26회	26회 동교회	200,000
27회	27회 동교회	500,000
28회	28회 동교회	500,000
28회	태령종합건설 사공득	10,000,000
29회	루브캐코리아 이승우	1,000,000
29회	29회 동교회	500,000
30회	강구문	10,000,000
30회	30회 허성길	2,000,000
30회	30회 조창학	1,000,000
30회	30회 동교회	500,000
31회		
32회	32회 동교회	500,000
32회	32회 김대현	2,000,000
33회	33회 이영석	3,000,000
33회	33회 동교회	500,000
34회	34회 동교회	500,000
35회	35회 신동필	2,000,000
35회	35회 동교회	500,000
36회	36회 동교회	500,000
37회		
38회	38회 동교회	400,000
38회	38회 동교회	290,000
39회	39회 동교회	300,000
40회	40회 동교회	1,000,000
40회	40회 동교회	330,000
41회	41회 동교회	1,040,000
42회	42회 동교회	1,000,000
42회	42회 동교회	510,000
43회	43회 박근호	500,000
43회	43회 윤용원	500,000
43회	43회 동교회	250,000
44회	44회 동교회	1,000,000
모임	벽오동(이상용)	70,000
모임	성건회	300,000
비동문	호텔수성김재석대표	5,000,000
계		54,090,000

지난 6월 25일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린 대전중 고등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음악회는 말그대로 대전인들의 합성이 온누리에 울려 퍼진 대서막이었다. 어느 행사보다 많은 1천3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대전인의 위상을 그대로 보여준 증거이기도 하다. 역대 최대 행사로 기록될 정도로 대성황을 이룬 이날 음악회에서 울려 퍼진 동문들의 연주는 70년 대전학교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듯 웅장하였다. 이제 대전인들은 음악회에서 울려 퍼진 대전인의 위대한 합성을 온누리에 알리고 있다. (편집자 주)



■ 동창회 발전기금 기부자

17회 동교회장 김철규	2,000,000만원
17회 동교회	200,000만원



한결요양병원
HANGEUL HOSPITAL

한결

차원이 다른 품격 의료, 수준을 더한 특급 진료!

처음처럼 한결같은 한결요양병원

내 가족, 내 부모를 섬기는 한결같은 정성과 사랑으로 모십니다!

병원장 **김봉준(33기)** 010-3502-3897

대구 달서구 대명천로 15(성당동 214-1)
입원상담. 053-591-9111
부설장례식장. 053-655-4444



서부정류장에서 1분거리

성당동, 두류공원, 대구공동회시장, 송림역, 남대구 IC, 상인역, 안지랑역

개교 70주년 기념

제38회 대건중 · 고등학교

대건 가족 체육대회

언제나 어디서나 양심과 정의와 사랑에 살자



일시_2016. 10. 9(일) 10시

장소_모교운동장(달서구 월성동)

주관_대건중32회 · 대건고34회 동기회

주최_대건중 · 고등학교 총동창회

다함께 2016
2
대건고 34회
임원단

회장 : 여성기
 고문 : 김흥규, 전용현, 배용호, 이동은, 박순보
 감사 : 박경근, 이승인
 부회장 : 김광수, 김봉석, 배재현, 배효도, 서인엽, 송형호, 양성일, 양해창, 윤석천, 이상권, 최은철
 사무국장 : 김대식
 기획총무 : 이승상 / 재무총무 : 김진수 / 조직총무 : 장영수
 재경 동기회장 : 홍연집 / 총무 : 윤희관
 재부 동기회장 : 최상덕
 34회 골프회 '골프렌즈34' 회장 : 여성기 / 총무 : 황인표
 34회 산악회 회장 : 김건호

제38회
대건가족체육대회
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 : 천덕우
 사무국장 : 김대식
 기획위원 : 송형호, 이승상
 재무위원 : 김진수
 대외협력위원 : 배용호, 배효도
 홍보위원 : 손정우
 행사지원위원 : 김도일, 배재현, 전형석
 조직위원 : 김성용, 장영수
 반별준비위원 : 1반 김도일, 2반 전형석, 3반 박상우, 4반 양해창, 5반 박철영
 6반 이태석, 7반 이승상, 8반 김재덕, 9반 이성환, 10반 김종만, 최상덕



대건중 · 고등학교 총동창회

<http://www.daegungo.net>